

“그림 그리는 모습이 바로 내 작품”

■ ‘길거리 전시’ 화가 김영현씨

혹시 광주 예술의 거리를 걷다가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잠시 멈춰 보길 바란다. 중앙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작은 무대 앞을 지나다 보면 잔잔한 음악 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이젤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태양빛이 따갑지만 청년은 ‘전시 중’이라는 작은 종이를 써놓고 그림 그리기에 한창이다. 정반에 물감을 풀어놓은 접시와 물병을 올려두고 커다란 화폭에 정성스레 그림을 그리는 그의 옆에는 ‘화가의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라는 작은 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시위 현장에서 함께하며 그렸던 작품은 행사를 진행했던 단체에 기증하기도 했다.

갤러리에서 열리는 일반적인 전시가 아닌, 조금은 낯선 전시를 기획한 김씨는 화가로서의 정체성에 고민이 많았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공모전과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육선 경매에 참여하는 등 보통의 화가들과는 조금은 다른 화가가 되고 싶었다.

현재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대학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김씨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8일 예술의 거리에서 한국화가 김영현씨가 자신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색 전시회를 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술관 전시 그림 ‘벽걸이’ 갈아 싫어 예술의 거리·시청 앞·금남공원 등서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로

래카드가 걸려 있다.

8일 예술의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청년 화가는 한국화가 김영현(27)씨. “그림 그리는 모습이 바로 작품”이라고 말하는 그는 소매를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종대 회화과를 중퇴한 김씨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이곳에서 그림을 그린다.

김씨가 자신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전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10일부터다. 광주시립미술관 야외 잔디밭을 시작으로 광주 금남공원, 용전 가는 길 사거리, 광주시청 앞, 금남공원 무대 등에서 그림을 그렸다.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3~4일 정도 전시를 하고(그림을 그리고) 나면 작품 한 점이 완성된다.

시간은 하루 3~4시간 남짓이다. 화실에서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 그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뭘까.

공익근무요원으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제대 이후에도 미술관에서 작품 설치 등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김씨는 미술관에 걸려 있는 작품들이 꼭 ‘벽걸이’ 같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작품들이 그냥 미술관이라는 하얀 공간에 걸려 한정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미술관에 걸리는 것은 ‘결과물’이고 대부분은 그 결과물을 중요시 여기죠. 전 그림 그리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전시하게 됐죠.”

현재 김씨가 몰두하고 있는 작업은

수십~수백개의 사각형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흔히 각이 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각형에 변형을 가해 그 속에 세상 사는 이야기를 담으려 하고 있다. 김씨는 여러가지 이유로 잠시 그림을 접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정말 나에게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생계를 위해서 야간에는 술집에서도 일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어요. 흠에서 서방한 경험이 많아 무거운 접시와 팔레트 들고도

몇시간씩 그림 그리는 데는 자신 있어요.(웃음). 야간에 일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저만의 그림, 저만의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길거리 그의 전시장에는 화려한 도록 대신 A4 용지 두장에 써 내려간 글이 적혀 있다. 김씨의 전시 공간은 당분간은, 예술의 거리지만 여타가 ‘또 다른’ 거리로 옮겨질 것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혜순 개인전 ‘꽃과 여인’ ▶3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수채화, 유화, 드로잉뿐만 아니라 테라코타 등 다양한 작업을 해온 중견화가 박혜순씨가 9~30일까지 광주시 동구 윤림동 무등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서너 해 전부터 천착해온 인물을 중심으로 한 수채화 신작을 선보인다. 화려한 꽃을 배경으로 한 인물화로, 원색의 세련된 색감을 살려 그린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다.

또 꽃과 고양이, 달이 어우러진 정원, 산과 나무 곁의 아늑한 풍경 등도 수채화에서 느낄 수 있는 단아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박씨는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 인사동 금란갤러리 개인전 등에 참여했다. 한국전업작가회 회원으로 강진 청자촌에 거주하며 작품활동 중이다. 문의 062-223-667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칸나와 여인’

월간 ‘Gwangju News’ 100호 발행

광주국제교류센터, 외국인들에 광주 정보 제공

광주국제교류센터가 (Gwangju International Center : GIC·소장 신경우 전남대 영문과 교수)가 발행하는 월간 잡지 ‘Gwangju News’가 6월호 100호째를 맞았다.

Gwangju News는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발간하기 시작한 지역 언론 잡지로 발간 이래 광주·전남 지역을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의 광주생활과 남도지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돕는데 기여했다. 매

월 내·외국인 기자와 자원봉사자 편집자들이 참여 제작해왔다.

“Gwangju News”는 발간 100호를 기념해 특집으로 역대 편집자들의 축하·격려 메시지, 역대 잡지 표지 사진과 주요이슈를 담았다. 또 한국에서의 카페문화에 대해 소개했으며 2010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수실과 큐릴씨와 유엔난민기구 앤 메리 캠페인 대표를 인터뷰했다.

2005년부터 6년여가량 인연을 맺어온 편집자 존 오젤(John Ozel-



ton)은 “잡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자와 배포처를 늘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사의 적절성을 높여

지역을 대표하는 영문잡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가이아 갤러리에서 독자와 내·외국인 인사를 초청해 과월호 전시, 주제 강연, 축하 공연 등 100호 출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226-273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2일 어린이대공원서 ‘학부모·학생 백일장’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신록의 계절, 가족·이웃을 사랑하고 따뜻한 심성을 심어주기 위한 ‘제9회 전국 학부모·학생 백일장’이 열린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회장 윤삼현)가 주관하고 한국문인협회 등

이 후원하는 이번 백일장은 전국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립미술관 앞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된다.

초등학교 재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학생부는 운문과 산문(200자 원고지 6~8매) 학부모는 동시와 동화(200자 원고지 25매 분량) 분야로 나눠

치러지며 글 제재는 자유다. 초등학생부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지도교사상을 수여하며 학부모부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이 주어진다. 참가비는 무료.

한편,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는 최근 130여 명의 회원들의 작품을 엄선해 광주·전남아동문학대표작 선집 21호 ‘참새에게 절하다’를 출간했다. 문의 010-4613-522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MEGABOX

1관	베스트 키드 (124)	최고급관
2관	섹스 앤 더 시티 (184)	
3관	방자전 (184)	
4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4)/유형작가(154)	
5관	드래곤길돌이3D(자막)(더빙)(124)	
6관	페르시아의 왕자 (124)	
7관	베스트 키드 (124)	
8관	A-특공대 (154)	
9관	A-특공대 (154)	

• 호남주치단원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상시 정상요금 부과

www.megabox.co.kr

컬롬버스시네마

1관	섹스 앤 더 시티 (184)
2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4)/하니(184)
3관	방자전 (184)
4관	방자전 (184)
5관	베스트 키드 (124)
6관	내 짝꿍같은 여인(154)
7관	페르시아의 왕자(124)/A-특공대(154)
8관	로빈 후드 (184) / 유형작가(154)
9관	페르시아의 왕자 (124)
10관	A-특공대 (154)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권, 아남점 동시개봉!
무조건 해치운다!

www.columbuscinema.com

씨너스

1관	페르시아의 왕자 (124)
2관	베스트 키드 (124)
3관	방자전 (184)
4관	섹스 앤 더 시티 (184)
5관	엣지 오브 다크니스(184)/유형작가(154)
6관	A-특공대 (154)
7관	드래곤길돌이3D(자막)(더빙)(124)
8관	내 짝꿍같은 여인(154)

씨너스 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청소년 할인혜택

www.cinus.co.kr

Primus

1관	방자전 (184)
2관	섹스 앤 더 시티 (184)
3관	나이트메어 (184)
4관	내 짝꿍같은 여인(154)
5관	하니 (184)
6관	로빈 후드 (154)
7관	유형작가 (15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앞 호남타워주차장 -다.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www.primuscinema.com